

비 전통 석유와 저유가 시대

이광우[†]

LG경제연구원

(kwlee@lgeri.com[†])

석유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전통 석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전통 석유(非傳統石油, Non-Conventional Oil)는 원유 채굴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추출이 불가능했던 자원을 기술 발전과 채산성 개선에 힘입어 생산 가능하게 된 탄화수소를 함유한 에너지원이다. 비전통 석유는 원유 매장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매장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했었다. 그러나 채굴 기술의 발전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의 개선으로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채산성 측면에서는 초중질유가, 환경측면에서는 GTL이,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일샌드가 유망한 비전통 석유로 평가된다. Tight Oil은 채산성과 공급 안정성 모두 유망해 보인다. 국제 석유시장에 미치는 비전통 석유의 파급력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발 Tight Oil 개발 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Tight Oil 생산을 전망하는데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연구기관들의 타이트 오일 생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다. 예전과는 달리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은 석유 공급량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 사수에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 Tight Oil이 견인하는 비OPEC과 OPEC 간의 공급경쟁이 이어지면서 저유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